

“홍천강 뽕뽕축제 즐기며 홍천 인삼송어 먹자” 추울수록 더 즐거운 가족축제장 갈수록 인기

‘전국 제일의 건강놀이터’ 홍천의 겨울축제
“빙어니 산천어니 해도 인삼송어가 최고!”

홍천 시가지를 안고 흐르는 홍천강 얼음판 위에서 펼쳐지는 뽕뽕축제장에 해가 갈수록 찾는 인파가 많아져 성황을 이루고 있다. ‘전국제일의 건강놀이터’를 표방하는 홍천군민의 염원을 실현하는 홍천강 뽕뽕축제는 가족이 함께 즐기는 축제로 특히 어린이들이 재미있고 안전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진행된다.

특히 인삼송어 얼음낚시, 인삼송어 야간낚시, 부교 낚시, 맨손 인삼송어잡기, 황금 인삼송어를 잡아라 이벤트, 얼음 놀이터 등이 인기를 끌고 있다.

2019년 7회를 맞이하여 1월 4일부터 1월 20일까지 17일간 개최되는 홍천강 뽕뽕축제는 회를 거듭할수록 프로그램이 다양화되며 발전하고 있다.

안전하게 가족이 즐기는 축제를 위해 맨손 인삼송어잡기에는 가슴장화를 제공하여 감기 예방 등 건강을 관리하고, 가족 실내 낚시터에는 초등학교 이하 어린이가 참여하여야만 입장하게 하는 등 어린이를 배려하고 있다. 이번 축제에는 추위를 피해 낚시를 할 수 있는 텐트 낚시터, 뽕뽕DJ와 함께하는 맨손 인삼송어잡기 등의 기존 프로그램 외에, 야간 낚시터를 개장하고 관내 숙박시설 이용시 당일 무료 이용권을 제공한다. 가족들에게 소홀해질 수 있는 연시에 가족단위 관광객들의 참여를 위해 가족 참여 체험 프로그램도 다양해졌다.

축제장의 꽃, 홍천인삼 먹고 자란 인삼송어
향산화 효능 · 면역활성 효능 지닌 최고의 맛

축제운영부 홍보팀에서 일하는 하수훈 씨는 “인제 빙어축제나 화천 산천어축제도 많이 알려져 있지만, 곧 홍천강 뽕뽕축제가 전국 제일의 축제가 될 것입니다. 홍천강 뽕뽕축제에는 다른 곳에는 없는 홍천 인삼사료를 먹고 튼튼하게 자란 인삼송어가 있기 때문입니다.”라며 축제장을 빛낼 인삼송어를 설명하기에 바빴다.

대학에서 생명공학을 전공하여 인삼송어에 더욱 관심이 크다는 하수훈 홍보팀원은 “치어에서부터 성어까지 철저하게 홍천인삼을 먹여 사육하는 인삼송어는 이롭만 인삼송어가 아니라 각종 검사에서 우수한 품질을 인정받은 겨울철 최고의 횡갑입니다. 거기에다가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프



◇ 제7회 홍천강 뽕뽕축제가 1월 4일부터 20일까지 17일간 열린다. 이번 축제에서는 맨손인삼송어잡기, 썰매타기 등 다양한 행사가 열린다.

로그램이 있고, 특히 어린이들을 위주로 한 안전하고 흥미로운 프로그램이 있어서 축제가 성공할 것입니다.”라며 ‘축제를 위해 일을 하니 인생이 축제 같다. 매일매일 즐겁다.’고 했다.

홍천강인삼송어는 부화장에서 부화시킨 뒤 치어를 안정기동안 보호하여 양식장에서 홍천인삼으로 만든 특수사료를 먹여 성어가 될 때까지 사육한다. 이렇게 자란 인삼송어의 ‘향산화효능 평가’에서 인삼송어가 일반송어보다 효능물질이 40%이상 높게 나타났고, 향산화 관련유전자인 SOD가 일반송어보다 178.7%로 크게 증가했다고 했다.

홍천군 축제의 산실 (재)홍천문화재단
5대 축제 궤도에 올려 군민들 칭송받아

홍천군축제는 찰옥수수축제, 별빛음악맥주축제, 무궁화축제, 인삼한우명품축제, 홍천강뽕뽕축제의 5

대 축제가 자리를 잡고 있고, 사과축제 등이 활발히 움직이고 있다.

축제를 관장하는 (재)홍천문화재단(허필홍 이사장, 전명준 대표이사)은 매년 진행되는 실험결과를 통해 홍천강 인삼송어의 우수함을 인정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홍천의 6년근 인삼으로 만든 인삼사료(특허번호 제10-1751180)와 청결한 사육환경,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으로 사육된 인삼송어는 뽕뽕축제 뿐만 아니라, 일상식품으로 보급하여 인삼농가와 송어양식농가 등 군민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사업으로 커 나가고 있다.

“올 겨울은 인삼먹인 홍천강인삼송어로 맛도 건강도 모두 챙기세요.” 홍천강뽕뽕축제장은 인삼송어와 함께 전 국민의 인기를 끌며, 추워서 되레 즐거운 겨울축제의 진수를 보이고 있다.

허남영 기자

CONTENTS



02 - 신년사

03 - 신년사

04 - 홍천군노인복지관 NEW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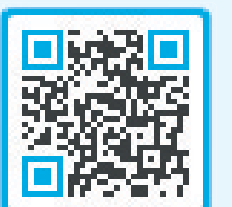
05 - 경로당 탐방

06 - 문화 관련 행사

우리 동네 전설이야기

07 - 자원봉사단체 소개

08 - 독자기고



신년사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 위해 지역사회와 협력”

■ 자월 홍천군노인복지관장



2019년 기해년(己亥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기해년(己亥年) 새해는 약 2천년 전부터 함께한 돼지의 해입니다. 돼지해는 육십갑자에서 을해(乙亥), 정해(丁亥), 기해(己亥), 신해(辛亥), 계해(癸亥) 등 다섯 번 들며, 12지의 열두 번째 동물입니다. 돼지는 신화(神話)에서 신통력(神通力)을 지닌 동물, 제의(祭儀)의 희생(犧牲), 길상(吉祥)으로 재산(財産)이나 복(福)의 근원, 집안의 재신(財神)을 상징합니다.
기해년(己亥年)의 기(己)는 황이므로 노란 색을 통해 우리는 다가오는 새해를 황금 돼지의 해로 부르며 모두가 복(福)되었으면 합니다.
부처님 말씀에 “심지 않고 거두려 하지 말라. 행하지 않고 이루려 하지 말라. 스스로 노력하라. 그대의 운명은 그대 스스로 짓고 받는다. 복을 받으려거든 복 받을 일을 하여 복을 짓고 복의 씨앗을 심으라”고 하시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복을 원하고 받으려고는 하지 복 받을 만한 일을 하거나 복의 씨앗을 심는 일은 많이 하지 않는 듯합니다.
오히려 남이 열심히 일하고 땀 흘려 이루어 놓은 것을 쉽게 얻으려는 생각을 하거나 잘되는 것을 시기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삶은 언제나 가난하고 괴로

울 뿐입니다.
복을 받고자 하는 것은 결과에 해당하며 복을 심는 일은 원인에 해당됩니다. 큰 노력 없이 복을 받고자 하는 바람은 버려야 합니다.
경전에 복을 심고 가꾸는 밭[福田]으로서 불법승(佛法僧) 삼보(三寶)를 공경하고, 삼업(身口意)을 맑게 가지며, 부모를 공경하고, 병자를 보살펴 주며, 불우한 이웃을 부처님 섬기듯 하라고 하시었습니다.
홍천군노인복지관은 어르신들의 복을 위해 ‘건강하고 활기차게 일하는 행복한 노후’라는 미션을 운영 목표로 일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복된 노후를 위하여 우리 복지관은 지역사회 모두와 노력할 것입니다.
우리 홍천실버신문이 5주년을 맞이하여 어르신들의 소식을 전달하여 함께 공유하고 나눌 수 있는 매개체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갖고 지속적인 발전을 거듭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새해에도 부처님의 가피와 행복이 여러분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노인인권복지 사업 확대 행복한 노후 제공”

■ 유엄 사회복지법인 월정사복지재단 사회국장 스님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씁없이 달려 어느덧, 사계절이 돌아 무술년의 마지막 달을 지나 기해년에 월정사 복지재단 유엄 인사드립니다.
월정사복지재단은 2007년 법인이 설립되어 지금은 홍천노인복지관을 비롯하여 월정사노인요양원, 삼화사노인요양원, 강원동부 노인보호전문기관 등의 강릉지역의 노인인권복지와 관련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외 아동 및 청소년 장애인 사업 또한 조금씩 저변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가능했던 것은 많은 후원자님들의

관심과 각 수행기관의 직원들이 헌신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특히 홍천군노인복지관은 직원들의 우수한 업무수행능력으로 홍천군 노인인권을 위해 노력하였고 이를 인정받아 시설을 더 운영할 수 있는 기회를 받게 되었습니다.
오대산의 근본인 화엄경을 번역한 탄허스님께서는 ‘향산일로(向上一路)’ 향상은 진보(進步), 일로는 대도(大道)를 이르는 말이니 곧 종문(宗門)의 극처(極處)를 뜻하여 깨달음은 지극한 것이라 나날이 위로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

“공동체 의식·연대감 높여 아름다운 노년 보장”

■ 방정기 홍천군노인복지회관 운영위원장



희망찬 기해년(己亥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해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홍천군노인복지관 운영위원장에 선임되었습니다. 일일이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는 것이 도리이오니, 지면을 통해 새해 인사를 드리게 됨을 널리 해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복 많이 받으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홍천노인복지관은 ‘인생과 사회를 아우르는 아름다운 노년’을 비전으로, 심신 증진 및 예방을 통한 건강한 노후, 도전과 열정을 지닌 활기찬 노후, 가치 창출 및 소득기회의 제공을 통한 일하는 노후 지원, 자기 개발 기회의 제공과 나눔을 통한 행복한 노후 지원을 목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가정과 사회로부터 소외되기 쉬운 어르신들의 신체·경제·정서적인 문제들을 예방함과 동시에 지역 사회의 인적·물적 지원 활동과 연계하여 어르신들의 “아름다운 노년”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공동체 의식과 연대감을 향상시켜 지역 사회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목표를 위해, 금년 한 해 지역의 여러 기관·단체 그리고 이용자인 어르신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최선을 다해 나가하고자 하오니, 아무쪼록 많이 성원해 주시고 지도편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해년 새해를 맞아 여러분들이 꿈꾸고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뜻깊은 해가 되기를 모두와 함께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신년사

“우리 모두 세상 밝히는 등불이 되자”

■ 허필홍 홍천군수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2019 기해년(己亥年)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모든 군민들께서 뜻하시는 소원을 반드시 성취하시고, 가정마다 기쁨과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먼저 지난 한 해 동안 군정 발전을 위하여 큰 지혜와 힘을 모아 주신 군민 여러분과 출향 군민 여러분, 특히 국군장병, 경찰관, 소방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또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소임을 다 해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해를 돌이켜 보면 다른 어느 해보다 급격한 변화의 국제정세에 놀라고, 또 다른 한 편으로는 군민 여러분께서 홍천군을 더 살기 좋게, 더 풍요롭게, 더 건강하게, 더 행복하게 만들어 달라며, 민선7기를 출발시켜 주신 뜻깊은 해이기도 했으며, 무엇보다도 특별했던 것은 우리 홍천이란 이름을 사용한 지 1000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민선7기를 시작하며 태풍소식 때문에 취임식도 취소했지만 그 후 이어진 유례 없는 폭염과 가뭄으로 농심은 타들어가고 하루하루를 근심과 고민 속에 지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벌써 6개월이 지나고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은 군민 여러분께서 많은 격려와 도움을 주신 덕분에 우리 군 발전의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큰 틀의 발전전략을 마련했고, 조직개편을 통해서 비효율적인 행정관행들을 개선하며 30년, 50년 후를 준비하는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기해년(己亥年) 새해는 고려 현종9년인 1018년 홍천이란 이름이 처음 불려진 이후 새로운 1000년이 시작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온 군민이 자긍심 속에 화합하고 공감하며 대외적으로는 홍천군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뜻깊은 기념행사를 준비하고, 대한민국 대표 건강놀이터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뜻깊은 한 해가 되도록 잘 준비하겠습니다.

민선7기의 시작과 함께 기본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은 대폭적인 변화와 지방자치의 활성화입니다. 온 세상이 대단히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우물안의 개구리가 될 수 있습니다. 대대

적인 교육과 벤치마킹을 통해서 공무원과 군민이 변하고 수준 높은 군민의 힘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발전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활성화의 흐름에 따라 홍천군의 주인인 홍천군민의 의견과 제안이 각종 정책과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각 읍면에 주민자치회를 구성해서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사업은 초기 설계시부터 실제 이용할 주민과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준공 이후 이용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천군의 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위해서 다섯 가지의 목표를 정하고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새로운 1000년 미래를 준비하는 혁신적인 마음가짐으로 홍천강 르네상스 시대를 활짝 열겠습니다.

둘째, 모든 군민이 어렵고 힘들다고 합니다. 경제활성화를 위하여 분야별로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셋째, 복지혜택은 소외된 이웃이 없이 공정하고 공평한 과정에 의해 다함께 만족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넷째, 항상 건강하고 신바람나는 군민이 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군민편의 위주의 행정시스템을 위해서 700여 공무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새해 우리 군에서 계획한 많은 일들이 목표를 달성하고 군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항상, 군민 여러분의 성원과 지지가 있어야 올바른 방향으로 보다 안정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민선 7기 군정을 출발시켜 주신 그 마음 그대로 아낌없이 응원해 주시고, 많은 자문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홍천군의 주인은 홍천군민입니다. 저와 700여 공직자 모두는 홍천군민을 주인으로 존중하고 섬기면서 대한민국 대표 건강놀이터를 통해서 홍천군의 발전과 홍천군민의 행복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새해에도 항상 건강하시고 가정마다 행운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어르신이 행복한 홍천건설 적극 동참 기대”

■ 김재근 홍천군의회 의장



여러분, 반갑습니다. 홍천군의회 의장 김재근입니다.

홍천 실버신문을 통해 여러분들과 새해 인사를 여쭙게 되어 대단히 뜻깊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금년 2019년은 기해년 황금돼지의 해입니다.

돼지의 강직하고 진취적인 기운에 힘입어 역동적인 발전을 거듭해 가는 2019년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홍천군의회는 현재의 홍천에 안주하지 않고 어르신 여러분의 기대에 앞서는 홍천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할 것이며, 그동안 내실 있게 준비해온 시책들을 펼쳐 가며 우리군의 품격을 한 단계 더 높이고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즐겁고 건강한

도시 기반 구축에 매진할 계획입니다.

홍천 발전의 신기원을 이룩해 나갈 대망의 2019년을 여러분과 더불어 더욱 크고 밝게 열어가기를 소망하며, 어르신 여러분께서도 홍천 발전을 염원해주시고 큰 힘과 지혜를 모아주셔서 어르신이 행복한 새 홍천 건설에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희망찬 기해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성취되는 뜻깊은 한 해 되시기 바라며, 아울러 더욱 건강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자 상담, 4고 해결, 세대통합 등 연중 진행

홍천군노인복지관은 2009년 12월 개관 이래로 '인생과 사회를 아우르는 아름다운 노년'이란 비전 아래 '건강하고 활기차게 일하는 행복한 노인'의 미션을 지니고 있다. 이에 미션에 걸맞는 사업 개발과 추진 등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관 운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지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홍천군노인복지관은 '행복한 삶과 활기찬 미래를 함께 열어가는 복지관'이란 모티브로 사례관리, 베이비부머 및 세대통합의 중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첫 번째로 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위한 환경조성으로 이용자 관리의 정기적 상담, 욕구 및 만족도조사 결과반영을 통한 평가시스템 구축을 진행한다. 노령인구의 증가로 복지관 회원의 증가율로 날로 높아지고 있다. 이에 이용자 관리를 위한 이용상담, 전문상담으로 초기 문제를 해결하고, 노인인권교육, 노인권익증진사업, 평생교육사업, 기능회복사업, 조사연구사업이 진행된다. 또한, 접근성 향상을 위한 경로식당 운영, 셔틀버스 운행, 이미용서비스 등 이용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한다.

두 번째로 4고(빈고, 고독고, 무위고, 병고) 해결을 위한 보호체계 기능을 강화하고자 한다. 강점중심의 접근과 개별화된 사례관리를 진행하고, 외부자문을 통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관리를 하고자 한다.

경증치매노인을 위한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방문목욕서비스를 통한 안정된 노후를 보장하고, 경증치매노인을 위한 인지지원서비스의 확대 운영, 치매예방을 위한 생명숲 기억키움학교, KB총명학교를 운영한다. 더불어 재가복지사업(이심전심-독거노인안부전화, 반갑다친구야-우울과 정서완화 프로그램, 도시락배달 등)의 강화로 행복한 노후를 지원한다.

세 번째로 베이비부머의 행복한 노후를 위한 사업을 전개한다. 베이비부머세대의 특성에 맞는 여가문화 활동 기반을 마련하여 사회의 기여충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다양한 공연으로 문화 및 감성교류를 할 수 있는 시니어예술단 영입, 노후 설계, 전문교육과 맞춤형 교육, 직업훈련으로 일자리 및 재능나눔사업을 전

개한다. 이는 베이비부머세대와 에코세대의 유기적 연결고리 체제 마련을 위한 선두적인 역할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네 번째로 가족구조 변화에 따른 세대통합을 위한 사업을 전개한다. 지역사회내 캠페인, 노인가상 체험 등을 통한 노인인식개선사업 전개, 단체와의 협업을 통한 세대통합 프로그램 개발, 다양한 연령대의 세대가 어울려 함께 학습할 수 있는 쿠키 및 텃밭체험, 1:1 핸드폰활용 전수 등 학습공동체 조성으로 사회통합을 이루고자 한다.

다섯 번째로 가족구조 변화에 따른 세대통합을 위한 사업을 전개한다. 지역사회내 노인인식개선을 위한 참여 활동을 확대하고 유관기관 및 지역사회기관과 협업을 통해 다양한 세대통합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 홍천군노인복지관은 다양해지는 욕구를 파악하고 이에 만족할 수 있는 각양각색의 사업을 개발하고 전개하여, 지역사회내 모두가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하고자 한다.

〈보도자료〉

수타사 신도회와 함께하는 사랑의 연탄 1,500장 나눔행사

홍천군 노인복지관의 저소득 재가 노인은 대부분 지역적인 특성상 추운 겨울을 보낼 것으로, 추위가 찾아오는 10월 말부터 추위가 수그러드는 3월 말까지 난방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약 5개월 동안 충분한 난방을 하지 못하고 겨울을 보내는 재가 대상자가 많은 상황이다.

이러한 매서운 한과 속에서도 모두가 따뜻한 겨울나기를 향한 온정의 손길들이 이어졌다. 홍천군 수타사 신도회에서는 연탄을 앞두고 저소득층에 전달해 달라며 연탄 1,500장을 홍천군 노인복지관에 기탁했다. 홍천군 노인복지관에서는 재가대상자 4명을 대상으로 연탄 1,500장을 지원하였다.

연탄을 전달받은 김 모 어르신은 “매년 겨울마다 난방을 잘하지 못하여 불이 얼어 동상이 걸렸었는데 연탄을 선물로 받아서 올 겨울을 따뜻하게 잘 보낼 수 있을 것 같아 감사하다”라는 인사도 잊지 않았습니다.

홍천군 노인복지관에서는 우리 주위의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연탄을 난방으로 사용하는 재가 대상자 4세대에 연탄을 전달해 모두가 따뜻하게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하였다.

홍천군노인복지관 손민지 사회복지사

홍천한우 사랑말, 한우 1천여두 매입기념 불고기 기부행사 개최



홍천한우사랑말은 한우 1천여두 매입기념으로 오는 26일 홍천군청 앞에서 사랑말한우대표(나종구)와 홍천군수(허필홍)이 참가한 가운데 지역 관내 소외계층 및 기관에 홍천한우 불고기 기부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사랑말한우 기부대상은 홍천군과 협의를 통해 지역 내 소외계층 총 372세대(홍천군 25세대, 홍천읍 75세대, 북방면 80세대, 화촌면 65세대, 남면 65세대, 동면 65세대)이며, 그리고 (사)인순이와 좋은 사람들, 노인복지관, 장애인 근로작업장, 장애인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이다. 선정된 가정 및 기관에는 홍천한우 불고기가 전달되었다.

한편 홍천한우 사랑말에서는 소외계층에게 한우 나눔행사, 다음세대 축복 프로젝트(홍천군에서 태어난 신생아와 산모를 위한 선물 나눔), 장학금 지급 등 지역사회환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홍천한우 사랑말 나종구 대표는 “지역 관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고 보답하는 사랑말한우가 되겠다”라고 전했다.

홍천한우사랑말유통영농조합법인

‘세(世)대(代)동(同)행(幸)’사업 세대 간 소통과 공감의 장 마련



대한노인회 홍천군지회(회장:이형주)는 2018년 『세(世)대(代)동(同)행(幸)』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12월 4일부터 12월 21일까지 1.3세대 소통과 공감의 장을 마련하면서 한 해를 마무리 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강릉사 유치원과 희망7리 경로당이 참여하고 강원도 경로당광역지원센터 주관으로 5회기에 걸쳐 진행되는데 1회기엔 지혜반 친구들의 리코더 합주와 다도 시연 및 접빈다례, 2회기 자몽청 만들기, 3회기엔 싱잉볼 체험과 함께 원생들이 어르신들의 손과 얼굴 마사지 해드리기로 진행하며 4회기엔 싱잉볼을 이용하여 어르신과 신체표현 활동을 하며 소통과 공감하기, 마지막 5회기엔 인절미를 함께 만들어 다과 파티를 하며 할머니의 동화구연으로 막을 내린다.

대한노인회 이형주 회장은 “어르신과의 만남을 통해 세대 간 소통과 공감의 장을 마련하는데 다양한 활동으로 함께 해 준 강릉사 유치원에 감사드리며, 아울러 이번 행사로 지역사회 속에서 1세대와 3세대간 어울림의 장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 효가 멀어져 가는 이 때에 1.3세대가 서로 이해하고 함께 하기 위한 좋은 자리가 점점 확대되어 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한노인회 홍천군지회

경로당 탐방시리즈 홍천군 남면 시동1리 경로당

61명 회원 대소사 함께 하며 한가족처럼 ‘돈독’



◇ 홍천군 남면 시동1리 경로당

민요 배우고 건강체조 하며 언제나 웃음꽃 활짝 “경로당 앞 실개천 안전사고 우려 복개했으면...”

홍천군 남면 시동1리 경로당은 2001년 3월에 설립하여 최재철(82세)씨가 맡아 15명 정도의 어르신들과 함께 가족적인 모임의 장소로 사용하였다. 그 후 회원이 점점 늘어 지금 현재는 남자회원 25명, 여자회원 36명 총 61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4년 동안 경로당을 이끄시다 2016년 1월부터 현 회장이신 김명섭(71세)씨가 운영하고 있다. 사무장인 이건군(65세)씨와 함께 모든 대소사와 일을 맡아 지금 현재에 이르고 있다. 어르신들의 건강과 행복을 드리는 보건소에서는 건강체조, 허리펴기 등을 하고 있으며, 특히 함께하는 민요는 춘천에서 오시는 박창순 강사께서 15명의 단원을 구성하여 2008년부터 현재까지 갖고 닦은 실력을 지역 내 요양원 등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으며, 2013년 면민의 날 행사 발표에서 찬사를 받고 홍천군수 표창도 받은 바 있다.

또한 전 회장이자 고문인 최재철(82세)씨는 많은 연세에도 불구하고 2002년부터 현재까지 홍천

군 열린도서관에서 후학들에게 한문을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가르치고 있다. 경로당 회원 중 최고령자이신 김여순(90세)씨는 건강의 비결을 민요를 배우고 많은 웃음과 식사를 잘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시동1리 경로당 옆에 자리하고 있는 협신초등학교에서는 주변 체험학습장에서 여러 가지 채소를 심고 추수하여 경로당 어르신들께 드려 인성교육이 타의 모범되게 하는 것 같아 박수를 보내고 싶다고 하였다.

또한, 인근부대에서 1년에 2회는 부대장과 부대원이 방문하여 일용품 등을 제공하고 장기자랑 등을 펼쳐 위문을 한다고 하였다.

회원 중에는 고문인 최재철(82세), 이성연(84세), 안만규(81세)씨 등은 노령에도 불구하고 홍천군 향교의 지부장과 유림으로 매월 음력 초하루와 보름에는 고유례 등 제례를 지내는데 한번도 빠짐없이 참석하는 원로 회원들이기에 칭송을 아

◇ 경로당 임원 현황

직책	성명	연령	직업
회장	김명섭	71	농업
부회장	서부덕	80	주부
고문	최재철	82	전 교장
관리	이성연	84	농업
감사	이선행	81	농업
감사	윤석병	76	농업
사무장	이건군	65	농업

☎ 033-432-1247

까지 않는다고 하였다.

회장인 김명섭(71세)씨는 사무장 이건군(65세)씨와 맡은 바 책임이 있어 생활에 필요한 식품이라든지 건강에 문제가 있으면 병의원을 모시고 다니는 등 대소사를 내일 같이 책임지고 있기에 회원들은 항상 마음이 든든하다고 하였다. 회원 중에는 11명이 일자리 창출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고 하였다.

끝으로 회장 김명섭(71세)씨는 경로당 바로 옆에 작은 개천이 있는데 어르신들이 다니기에 불편하여 복개공사나 주변 울타리라도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였다.

안태수 기자



문화 관련 행사

제1회 홍천이야기대회

예선 거친 10명 이야기꾼 다양한 소재로 열띤 경연

우리들의 삶의 이야기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한 이야기는 끝이 없을 것이다. 살아가는 것 자체가 이야기의 연속이기 때문이다. 홍천군과 문화재단은 처음으로 살아가는 이야기를 주제로 제1회 이야기 대회를 개최했다. 12월 6일 오후 2시 문화예술회관 공연장에서는 예선을 거쳐 올린 10명의 이야기꾼들의 치열한 경연이 벌어졌다. 공연장은 관중으로 가득 차 주민들의 뜨거운 관심을 보여 주었다.

서낭당 제사

본선에 참가한 이야기꾼들의 재기 발랄한 특색 있는 이야기는 흥미를 자아내기에 충분했다. 대상은 개가 말로 바뀐 제사 이야기가 차지했다. 우리나라의 토속 신앙인 서낭당에서 마을의 안녕을 비는 일종의 토테미즘이다. 서낭당은 마을의 어귀나 고갯마루에 돌무더기를 쌓아 올린 나무 또는 장승으로 이루어졌다. 마을의 수호 액운 퇴치 소원 성취 등을 기원하는 민간 종교의 의미가 강하다고 볼 수 있다.

개가 말로 바뀐 제사 이야기

지금까지도 마을의 안녕과 무병장수를 위해 서낭당에서 마을의 제사를 지내고 있다는 이야기가 흥미로웠다.

대상을 차지한 개가 말로 바뀐 이야기는 한 마을의 오래 전부터 제사를 지내던 이야기다. 예전에는 마을



◇ 지난 12월 6일 홍천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제1회 이야기대회 입상자들이 자리를 함께했다.

의 안녕을 기원하는 제사를 서낭당에서 지냈다. 이곳의 마을도 예외는 아니어서 처음에는 말로 마을의 제사를 지냈다고 한다. 한동안 마을의 젊은이들은 미신이라고 제사를 지내지 않았다고 한다. 그 이후 마을은 줄초상이 일어나고 마을이 액운이 끊이지 않았다고 한다. 마을 사람들은 다시 제사를 지내기로 하고 구하기도 힘들고 비싼말 대신 개를 말로 바꿔 제사를 지내고 있다고 한다. 그 이유는 이렇다. 처음 개를 제사상에 진설하고 제사를 지내기도 전에 옆에 있던 세 사람이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그 개고기 술안주 했으면 맛있겠다!”

그 말을 주고받던 세 사람 모두 얼마 지나지 않아 죽었다고 한다. 그 뒤론 개를 개라고 부르지 않고 말이라고 부르면서 지금까지 제사를 지내오고 있다고

한다. 이야기는 재미도 있고 교훈도 준다.

이야기는 우리들의 살아가는 삶의 원형질인지도 모른다. 살아가는 방식도 환경도 다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자기만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다. 각자의 삶의 도정이 다르듯이 이야기도 천태만상이 될 것이다. 이야기 대회를 지켜보며 자기만의 자서전을 써보며 어떻게 하는 생각을 해 봤다.

나이와는 상관없이 지내온 이야기와 앞으로의 삶을 미리 예측하고 설계하는데 좋은 대차대조표가 되리라 생각한다. 지나온 날을 성찰하고 목표를 두고 미리 꿈꿔보는 삶의 이야기인 자서전은 흥미롭고 유익할 것이다.

김정현 기자



우리동네 전설이야기

장수촌 북방리

봄날 허기진 심마니 정성 다해 대접 103세까지 장수

옛날 깊은 산골 강원도 홍천군 북방면 북방리에 장씨 가문에 두 아들이 두 자부와 손자손녀 4대손이 한 집에 함께 다복하게 살았다. 아들은 뒤뜰에다 방을 만들어 조상님을 지극정성으로 잘 모셨다. 장남은 조석으로 문안드리는 효자였다. 두 자부는 봄이면 대룡산과 연엽산에 올라가 각종 산나물과 송이버섯, 능이버섯, 찌리버섯을 채취하여 정성껏 요리하여 잘 대접하였다. 때는 대룡산 눈이 녹고 새 생명이 약동하는 어느 봄날 점심 때 심마니 두 분이 허겁지겁 문간에 와서 먹을 것을 구하니 주인 장씨는 밥술이나 먹는 집이라 정성껏 푸짐히 대접을 하였다. 심마니들에게 잠시 쉬었다 가시지요? 하였더니 심마니 두 분은 기다렸다는 듯이 흔쾌히 대답을 하였다. 장씨는 동네



자랑을 심마니들에게 하였다. 이 동네는 대룡산과 연엽산이 있어 산수가 좋아 평균 90세 이상 산다고 하였다. 마침 92세가 된 노인이 나무지계를 지고 나무해 오는 것을 보고 장씨는 심마니들에게 보통 청년이

라고 하였다. 식수로 사용하는 우물가에 수백 년 묵은 구기자 나무뿌리가 복령이 되어 우물 바닥에 깔려 있는 것이 보였다. 이 물이 동네의 식수라고 하였다. 약간의 뿌연 물이 나온다고 하였다. 이 동네는 산수가 좋아 오래 산다고 하였다. 장씨의 후한 대접을 받은 심마니는 후일에 강원도에 감사가 나온다고 예언을 하였다. 몇 년 후 강원도에 감사가 나왔고 장씨 장남은 103세에 죽었다고 하고 현재는 대룡산과 연엽산 산기슭에 연화사와 북방면 상화계리에 건강생활 지원센터와 소공원이 조성되어 홍천군에서 장수촌으로 명명하였다. 이곳을 장수촌으로 계승하려는 방침이다. 이광명 기자



자원봉사단체 소개 및 칭찬

홍천군 안전보안관

“우리 주변 위험요소 찾아 안전 무시 관행 뿌리 뽑는다”



◇ 홍천군 안전보안관 팀원들

생활속 안전위협 요소 행정안전부 즉시 보고 문제 해결 35명 회원 “사고로부터 내 가족 보호” 민간 경찰 역할

홍천군 안전보안관 회장 최숙희씨와 팀원들을 만나 좀 생소한 안전보안관의 역할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 단체의 정신

행정안전부에서 올해 5월 발대식을 하였고 7월부터 활동을 하게 되었다. 이 단체의 취지는 생활 속 안전무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하여 국민 스스로 주변의 위험요소를 찾아 알리는 데 있다. 이들은 홍천군에 거주하면서 지역 여건을 잘 아는 사람들이 주변의 위험요소들을 찾아 행정안전부로 보고한다. 행정안전부에서는 홍천군으로 위험사항을 알려주면 군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 회원의 역할

회원 수: 35명

현재 회원은 35명이며 구성원은 40대에서 70대까지의 연령대로 남녀가 함께 봉사에 참여하여 활동하고 있다. 회원이 되려면 소정의 안전보안관 교육

과정을 수료하여야 한다.

사고로부터 내 가족은 내가 보호한다는 마음으로 길을 가다가도 시정되어야 할 위험요소가 있으면 안전신문고로 사진을 전송하여 실시간 보고가 가능하다.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행정안전부에서 즉시 홍천군으로 시정할 사항을 알려주므로 그때 마다 시정이 가능하다.

▶ 봉사내용

도로주변의 위험요소, 공사장 주변, 후미진 곳의 우범지대, 위생이나 환경, 붕괴위험건물, 주차 등 주변의 모든 위험요소가 활동의 범주가 된다.

안전보안관으로 임명이 되면 핸드폰에 행정안전부로 전송이 되는 앱을 깔아준다. 위험요소가 있는 사진을 찍어서 전송을 하면 위치가 전송이 되어 위험 여부에 따라 즉각 반영되어 시정이 가능하다.



◇ 최숙희 회장

군인이나 경찰의 눈과 손이 미치지 않는 곳에 민간인으로 봉사하므로 민간 경찰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 안전 캠페인 활동

월 1회 장날에 안전 보안관 조끼와 모자를 착용하고 생활 속 안전에 관한 캠페인 활동을 벌인다.

• 기타 활동

시·군의 경찰과 각 단체에서 년 1회 재난 시 대처 방법을 훈련할 때에 참관하며 소방훈련 때도 참관한다. 그 외 독거노인 도시락 배달, 노인복지회관 식당 봉사 등이다.

• 팀워크를 이루는 방법

매달 1회씩 모여 식사를 하며 각자의 활동 내용을 서로 나눈다. 이런 모임 가운데 서로 보람된 일임을 자각하고 함께 기뻐하며 더욱 봉사에 대한 열정을 가지게 된다.

▶ 희망 사항

우리 모두가 생활 속의 안전을 지키고 사고로부터 내 가족을 보호한다는 의식을 갖기 바란다.

또한 “자신만 편하기 보다 남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서 모두가 살기 좋은 홍천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김순화 기자



독자기고



석도익

소설가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로 일촉즉발의 위기에서 평화의 오류인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평온을 찾아가고 있는 듯하다.

원치 않은 분단으로 피차 정통성을 내세우며 정상국가로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으나 남북의 최고 지도자가 만나는 것을 정상의 만남이고 정상회담이라고 했으니, 이제는 양쪽이 모두 헌법을 떠나서 하나의 나라로 인정한 것이 된다.

대한민국 대통령과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 국무위원장 두 정상이 어렵게 만났고 현안문제를 풀기 위해 몇 번 더 만났다. 주먹이 가깝다고 치고 박고 싸우다가 코피 터지고 상처 난 몸으로 화해하는 것보다는 싸우기 전에 대화로 풀어나가는 것

이 현명한 것이긴 하다.

그러나 그들은 이미 핵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에 위협을 느끼지 않을 수는 없다. 필자가 지난날 개성을 관광 갔을 때 일이다.

마침 우리 일행을 안내하던 북쪽 젊은이들과 잠간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 “남쪽에 이명박이 대통령이 된 후로는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서 개성공단도 더 확장 못하고 있다며, 우리가 이렇게 남쪽에 잘해주는데도 이명박이 너무나 거 아님네까?”하고 그들의 불만을 털어 놓았다. 아마도

북한은 최고지도자 한 사람에 의하여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 곳이다.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평화의 바람에 한·미·북 정상들이 만나고 각급 회담이 열리고 급기야는 휴전선 최근거리 GP가 철거되고 대전차 방어선이 치워지며 지뢰를 제거하고 전사자 유해를 발굴하며 비무장지대 남북통로까지 뚫었고, 평화의 인공 바람은 하늘과 땅 바다 사방에서 불어와 지금은 휴전중이 아니라 평화중이다.

“남북 관계 냉철한 시각 필요”

지원해 준다고 한 것이 제대로 안 된다는 것 같았다.

이에 나는 “우리 남쪽에서는 대통령이 혼자서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에 동의도 얻어야 하고 국민들의 여론도 참작해야 하기 때문에 늦어지든가 축소될 수도 있다.”고 해명하니 그는 대뜸 연성을 높이며 “그 판 게 어딴시오. 대통령이 하라하면 하는 거지요.”라고 하는 것만 보아도 그들은 최고영도자의 결정과 지시에 모두가 일사천리로 따른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6·25남침을 하여 수십만의 동포들이 귀중한 목숨을 잃고, 불구가 되었는가 하면 이 혼란 중에 가족을 잃고 생이별의 아픔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또 얼마인가? 그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지 조금씩 얼굴만 보여주는 이산가족상봉이라는 한 모금의 물로 갈증을 부추기며 여기까지 왔다.

우리 민족은 온정이 있는 가슴을 가지고 있다. 지지고 볶고 싸우다가도 미운정이 고운 정으로 들어 서로 아껴주며 살아간다. 정은 때어도 미

련이 남아 그리워하는 민족의 정서가 있다.

그래서 남의 돈 때어먹고 도망치거나 도둑이 들어 귀중품 다 훔쳐간 사람에게 죽일 놈 나쁜 놈 하면서 욕을 하다가도 끝에 가서는 “오죽했으면 나 같이 없는 사람에 돈을 때어 먹겠냐?” “얼마나 살기 힘들었으면 지지도도 못사는 우리 집을 털어갔겠냐?”하며 “에라 이놈아 잘 먹고 잘 살아라”하고 악담이 아닌 덕담으로 포기하고 마는 것이 우리민족이다.

기독교를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몸소 실행한다.

남과 북은 서로 마주보며 그리워하고 있으나 골육상쟁을 한 원수지간이다. 그러나 우리 민족끼리라는 그 말에는 정이 가득 고이며 누구나 평화와 통일을 소원하던 중 평화의 실바람에 이성을 잃을까 염려되는 부분이다.

남과 북은 70여 년 전 원점에서 사상을 달리하고 다른 체제에서 반대방향으로 달려갔으니 140여 년이라는 거리가 벌어져 있다.

우리 민족끼리라고는 하지만 우리와는 다르게 최고 지도자 한 사람의 뜻과 힘으로 통치되는 곳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평화로 접근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

독자기고



이세현

전 춘천시 경제인연합회장

또 한 해가 저물어가는 길목에서 사람들의 발걸음은 부산하다. 한 해를 정리하며 마무리하는 모습들 속에서 정말로 다사다난했던 무술년이 저물고 있다. 무엇보다도 평화의 물결이 일었던 한 해였다. 이 평화의 손짓이 짝사랑이 아닌 온전한 사랑이 되길 바란다. 갑자기 찾아온 추위에 생활이 넉넉지 못한 가정에서는 겨울나기 걱정이 앞선다.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편부모, 조손가정 등 모두 힘든 삶을 꾸려가는 계층의 가정들이다.

이맘때면 마지막 남은 한 장의 달력을 바라보며 누군가의 손길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기에 더욱 마음이 안쓰러워짐은 아닐런지. 치솟는

물가에 가정주부들은 시장보기가 겁이 난다. 박봉에 식솔들을 먹여 살려야 하는 가정들의 외침과 이러한 서민들의 생활고에 사람들은 얼굴에 웃음을 잃어가고 있다. 많은 국민이 알다시피 우리나라는 빠르게 고령화 사회로 진입해 들어가고 있다. 2026년이면 대한민국은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전망이다. 이에 따른 지역사회의 구성원들은 다양한 복지욕구를 돌출해내고 있다. 앞으로 날씨는 점점 추워질 것이고 어려운 이웃들은 몸과 마음의 냉기를 녹일 수 있는 따

유를 누리고 행복과 안전을 추구하고 얻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저소득층만 아니라 중산층을 포함한 대부분의 국민들은 만성적인 불안 속에 살아가고 있다. 일자리 불안, 보육 및 교육불안, 주거불안, 노후불안, 건강 및 의료불신 등 또한 심각한 청년실업은 우리나라의 미래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정부에서 발표한 경제지표에도 내년도 경제상황 역시 그리 밝지 않다. 기업들의 살아남기 위한 발빠른 위기대응과 미래 준비를 보노라면

무술년을 돌아보며

새로운 후원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고 대한민국 헌법 제34조에 명시하고 있다. 기본적인 권이 공식화 한 것은 1776년 6월 버지니아 인권선언이 처음이다. 제1조에는 모든 인간은 날 때부터 평등하게 자유로우며 독립적이고 사회구성원이 되는 순간 어떠한 계약으로서도 빼앗길 수 없는 선천적 권리를 갖는다. 그러한 권리란 스스로 얻거나 소유한 재산을 이용하여 인생과 자

위기대처 불감증에 빠진 정부 모습이 안쓰럽다.

경제지표가 곤두박질치고 고용 참사와 양극화가 심화되는데 정부는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궁금할 정도로 대응력이 굵뜨다. 무리하게 밀어붙인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제 등의 후폭풍으로 산업공단 내 공장들이 불이 꺼지고 골목상가 영세상인들의 폐업이 급증하고 있지만 돌려막기식, 임시변통, 근시안적 미봉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중소기업

이 어려워니 대기업이 신경 좀 쓰고 자영업자가 힘드니 카드사들이 수수료를 낮추라는 식이다. 과연 정부는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고 있던 말인가. 저출산 대책문제도 그러하다. 올해 출산율이 처음으로 1.0명 아래로 떨어질 것이 확실시 되면서 2020년 출산율 1.5명 달성이라는 기존 정책을 전면 수정하고 2020년까지 추진할 저출산 고령사회정책 방안을 이제 부랴부랴 내놓은 것이다.

2006년 이래 5년 단위로 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을 세우고 추진해 오면서 무려 150조원 이상을 쏟아 부었지만 백악이 무효였다.

우리 강원도도 내년부터 출생하는 가정에 월 70만원이라는 지원금을 약속했다. 물론 출산 가정에 도움은 되겠지만 좀 더 고민하고 향후 강원도 인구를 늘리는 확실한 방안을 내놓았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

강원도 18개 시·군 의원들께 주문한다. 235명 당선인들이 지난 6월 14일 의정 공약다짐대회를 가졌던 그 초심을 잃지 말고 의정비 인상에 상응하는 의정활동을 해줄 것을 도민이요 시민의 한 사람으로 간곡히 부탁한다. 의원 여러분들의 의정활동비가 강원도민의 혈세임을 명심해주시길 바라며 필을 놓는다.